

技術集約中堅기업 2천개首城

제 1회 기술진흥지역협의회 개최

簡易自動化 촉진위해 전담용역사 설립



科學技術處는 오는 2,001년 까지 육성될 1만개의 유망중소 기업중에서 기술적인 도전의 가능성이 있고 高附加価値를 창조할 수 있는 2천개업체를 선정, 연간 1천만달러를 수출할 수 있는 技術集約型 중견기업으로 집중 육성시켜 나가기로 했다.

金聖鎮과학기술처장관은 5월 9일 한국수출산업공단에서 기업인·기술인·정부관계부처인사 대학·연구기관관계자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 1회 技術振興地域協議會에서 이 같이 밝히고 기술집약형 중소 기업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중소기업기술개발에 큰 비중을 두고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金 장관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을 과기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중점부문으로 수행하는 한편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지

원 강화 ▲ 기술개발주식회사를 통한 기술개발자금 우선지원 ▲ KAIST 우수졸업생의 중소기업 파견지원 ▲ 선진국과의 중소기업기술이전협력사업 알선등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金 장관은 특히 중소기업 簡易自動化 사업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위해 간이자동화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자동화전문기술용역회사를 설립·육성하겠다고 밝혔다.

科技处는 이밖에도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조기에 도입,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구매제도를 품질·성능중심의 종합낙찰제로 전환, 우수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보해 줄 계획이다.

電子通信研 새로 発足

초대소장에 景商鉉박사 취임

電子와 通信분야의 유기적인 기술개발체제를 강화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한국전기통신연구소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가 통합, 새로 발족한 韓國電子通信연구소 (KETRI)가 5월 29일 정식 업무를 개시했다.

전자통신연구소 설립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電子 등 관련기술 개발을 범국가적으로 추진, 연구 효율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에 발족한 한국전자통신 연구소는 通信사업, 電子공업, 情報산업 등 관련분야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개발하고 이를 보급할 계획

인데 본부는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전기통신연구소건물을 사용하고 구미에 있는 전자연구소는 電子분소로 꾸며 창원에 있는 電氣분소와 함께 分所長을 임명, 분소체제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ETRI 초대소장에는 景商鉉박사가 취임했다.

科技处 人事

▲ 과학기술심의실장 朴勝德 (기계연구조정관·승진) ▲ 원자력위원회 상임위원 权原基(과학기술심의실장)

“科總육성에 적극 지원할 터”

金과기처장관, 科總현황청취



金聖鎮과학기술처장관은 지난 5월 10일 오전 산하기관 초도 순시차 과학기술회관소재 국립 천문대에 들린 후 韓国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를 찾아 과학기술계의 발전 및 科總육성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金장관은 趙完圭과총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金東一·申昌고문, 鄭助英사무총장 등 임원의 영접을 받은 후 鄭사무총장으로부터 주요사업 등 科總운영 전반에 걸친 현황보고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科總은 金장관에게 학회학술활동지원금의 계속적인 증액과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학술회의 규모 확대 및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 대지 구입, 在外한국과학기술자협회의 지원 등에 힘써줄 것을 전의했다.

한편 이날 오찬형식으로 마련된 원로과학자 20여 명과의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위한 진지하고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

회장에 成樂正씨 피선

FEISEAP 총회서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4 일간 韩国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昌原소재 韩国重工業(주)에서 개최된 東南亞·太平洋 지역工學團體聯合會(FEISEAP) 제4차총회에서 금년부터 1987년까지 會長國이 된 韩国의 成樂正 科總부회장(韓國中공업社長)이 동연합회의 會長에 피선됐다.

동남아 태평양지역 국가회원

간의 기술용역 협력 및 과학기술정보교환, 지역별 국가단체 활동의 고취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호주·인도네시아·일본·뉴질랜드·홍콩·말레이시아·태국·페지·파푸아뉴기니·필리핀·싱가폴의 과학기술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5월 7일 개회식은 成樂正 조직 위원장의 환영사와 탐푸보론總會의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과학기술처장관의 축사(权原基과기처장의실장代讀), 韩国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의 축사(金魯洙부회장대독), 유네스코대표의 축사가 있은 다음 「기술용역 및 전문직훈련」을 주제로 한 이틀간의 워크숍에 들어갔다.

이 워크숍은 홍콩대표 Edgley 박사와 한국의 許墳박사(한국기술사회부회장)가 공동의장이 돼 진행했는데 각국대표 발표에 앞서 Edgley 박사의 기사·기능·기술사의 역사적 발전 과정 및 배경 등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차기회장국으로 홍콩을 지명했으며 총회 결의에 따라 사무총장은 회장국인 韩国의 閔丙墩씨(韓國中공업이사)를 선임했다.

7개국 대표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는 금년 가을 日本에서 개최키로 했다.



□ 제 1 회

第1回 大氣環境학 학술회의 개막식

科總주최, 5월 20일~24일 朝鮮호텔서

19개국전문가 논문 80여편 발표



□ 대기환경에 관한 최초의 대규모 국제회의인 이번회의 개막식에서 趙完圭대회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대기 및 환경 관계 학술회의로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로 기록된 제1회 국제大氣環境학술회의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tmospheric Sciences and Applications to Air Quality)가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일본, 카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쿠웨이트, 홍콩등 19개국의 대기환경 관계 전문가 3백여명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서울조선호텔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국제대기 환경학술회의 조직위원회 (위원장 李相洙) 가 주관, 과학기술처와 환경청

학술단체가 참여,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기과학 및 환경오염등과 관련한 최신의 연구논문 81편을 발표하는 한편 이분야 발전책을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1일 조선호텔 볼룸에서의 개회식에는 趙完圭대회장, 金聖鎮과학기술처장관, 闵寬植 科總 명예회장, 金東一 상임고문, 科總회장단등을 비롯 내외귀빈 다수와 국내외 발표자들이 참석했는데 趙完圭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기오염의 문제는 이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의 인간 생활과 자연환경의 개선을 위해 과학과 기술적인 경험들을 교환하는 국제적인 회합을 가질수 있게된것을 흐뭇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수준높은

후원으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는 UN환경기구와 세계기상기구등 국제기구와 한국기상학회, 미국기상관제협회, 카나다기상학회, 미국기상학회, 한국환경보존협회등 국내외 18개



연구결과의 발표와 토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金聖鎮과학기술처장관은 축사에서『산업의 발전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준 반면 대기오염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게했다』고 지적하고『한국은 3개년계획을 수립, 대기오염의 획기적인 감소방안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개회식에서는 미국대기오염조절협회 G.S.하트부회장과 廬在植학술위원회, 세계기상기구 대표인 A. 켈러씨의 기조연설을 들은 후 외국대표들을 위한 한국소개 멀티비전 슬라이드 상영이 있었다.

한편 20일 오후에는 국내외 발

표자들간의 비공식회합을 가진 데 이어 학술발표 첫날인 21일 저녁에는 조선호텔에서 趙完圭대회장 초청 환영리셉션이 베풀어졌으며 23일 저녁에는 조선호텔 갤럭시룸에서 국내외 발표자와 대회임원들을 위한 만찬

이 있었다.

한편 이번 제1회 대회의 총 11개분과에게 발표된 논문들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환경관계 전문학술지『Atmospheric Environment』誌에 게재될 예정이다.



太平洋연안국 原子力회의 開催

국내외 원자력전문가 9백여명 참가

太平洋연안국 제5차原子力회의가 미국, 카나다 일본등 태평양연안 22개국과 불란서, 서독, 영국등 비태평양연안 16개국등 세계38개국에서 9백여명의 원자력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5월19일 쇼라톤워커힐에서 전시회를 시작으로 개막됐다. 「原子力産業 활성화를 위한 상호의존」이라는 주제로 23일 까지 5일간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원자력발전사업의 착수」「后行핵연료주기」「지역협력」「중·소형원자론」「동위원소 및 방사선응용기술」등 6개기술분과로 나뉘어 모두 60여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韓国原子力学会와 韓国原子力産業会議·美國原子力学会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회의 개막식에서 金聖鎮과학기술처장은 축사를 통해『태평양연안지역은 세계원자력산업 발전의 가장 핵심지역으로서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원자력발전사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간 협력이 한층 원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리차드 케네디 美국무성원자력담당부임소대사를 비롯, 월터 마샬 영국전력공사총재, 데이비드 추대만 전력공사사장, 루 구양중공

원자력학회사무총장, 죄 헨드리 미국원자력학회장, 제임스 도넬리 카나다원자력공사사장등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가했다.

또한 이번 회의 기간중에는 세계원자력산업체가 참여하는 원자력전시회가 열렸는데 미국의 콤비션 엔지니어링·제너럴 일렉트릭·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프라마톰·알스톰, 카나다의 카나다원자력공사, 스위스의 브라운 보베리, 일본의 히다치·미쓰비시·고베제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성·현대·한국중공업등 모두 48개 원자력업체에서 350여점을 출품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이어 제6차 태평양연안국 원자력회의는 오는 87년 9월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中共 北京의 만리장성호텔에서「1990년대원자력기술의 모습」이란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85 국내외 韓国과학기술자 學術會議

夏季심포지움 韓国科技院서 열려

7월 8~12일, 地質学 등 6개분과



韓国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85国内外한국과학기술자学術會議 夏季심포지움의 일정과 분과가 확정됐다.

国内外 한국과학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토론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과학의 기초를 다지고 연구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유대강화를 통해 국내 학계 및 연구계의 발전에 이바지할 이번 심포지움은 7월 8일(월) 개회식을 갖고 학술 발표등 5일간의 공식일정을 치룬다.

韓国과학기술원에서 열리는 이 하계심포지움에서는 ▲지질학분과에서 「지질학의 발전과 한국의 광물자원」▲수학분과에서 「현대수학」▲스포츠과학분과에서 「스포츠과학정보의 현장적용」 ▲의·약학분과에서 「Doping Control」(약물검사) ▲농·수산분과에서 「한국식물보호의 현황과 발전방향」 및 ▲화학공학분과에서 「물질 및 에너지 전달과 촉매공학」 등을 과제로 6개분과에서 在外연사 12명

과 국내연사 60명등 모두 72명이 학술연구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이번 심포지움에 참가는 在外한국과학기술자 12명은 학술발표 외에도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산업체와의 간담과 기술자문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碩座제도 운영 키로

KAIST. 국내처음으로

韓国科学技術院은 국내 최초로 교육·연구활동에서 저명한 업적을 쌓은 科學者를 위하여 碩座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이 석좌제도는 과학기술원이 그동안 국내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이룩한 연구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產學協同관계를 유지하여 보다 획기적인 연구결과를 낳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코오롱(株)와 金星通星(株)가 각각 3억원씩의 석좌기금을 기탁하여 이 기금을 시작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

시되는 석좌제도란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기탁받아 석좌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을 활용, 발생되는 과실금으로 각 전공분야에서 독보적 위치에 있는 과학자를 석좌교수·석좌연구원으로 추대하여 교육·연구에 필요한 재경비 및 간접비등을 지원하여 교육·연구활동에만 전념토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의 옥스포드·캠브리지대학과 미국의 하버드·MIT·예일대학등 세계유수의 명문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석좌제도가 이번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KAIST에서 운영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통하여 석좌이나 저명한 과학자를 배출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

50개과제 공동연구키로

韓·美과학재단 합의

韓·美양국은 85년과 86년에 「계이지 이론에 있어서 복합모델에 관한 연구」등 50개과제를 韓·美공동연구로 추진하는등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공동연구와 세미나 및 과학자교류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韓国科学財團(이사장 李正五)과 美国科学財團(NSF)은 5월 20~21일 忠南 大德에서 제9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84년도 협력실적검토 및 평가와 향후 韩·美간의 과학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86년에 「반도체재료 및 응용에 관한 물리학」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편 첨단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유전공학분야의 세미나를 美国 또는 韩国에서 개최토록 합의했다.

亞·太 畜產聯총회 開催

30개국서 4백여명 참가

제3차 아시아·태평양 畜產學會연합회(AAAP)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5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셰라톤 워커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효율적인 가축생산에 위한 아시아인의 복지향상」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미국·일본·호주등 세계30여개국대표 4백여명을 비롯한 1천여명의 국내외의 축산분야전문가들이 참석, 유전·육종·번식, 영양, 사료자원·사료첨가제 및 사료가공, 초지관리, 축산물가공, 가축관리와 경영형태, 목장경영과 축산물유통, 가축질병등 11개분야에 걸친 특강 및 심포지움과 관련분야별 학술논문발표회가 있었다.

韓國畜產学会가 주최하고 농수산부 및 축협중앙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첫날 개회식에 이어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에 이어 최대규모의 축산업 및 생산물, 축산용기구·기계, 동물약품 및 관련서적등에 관한 전시회가 있었으며 이 행사에 앞서 2일부터 4일까지는 AAP와 세계사료정보센터(INFIC) 공동주최로 「온대지역 가축사양체계」에 관한 심포지움도 열렸다.

원로과학자 보훈금 전달

金東一·박사등 15명에게

韓國科學技術振興財團(이사장 尹日善)은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원로과학기술자 15명을 선정하여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훈금을 전달했다.

5월24일 재단회의실에서 열린 원로과학 기술자 간담회에서 전달된 보훈금은 월1인당 25만원씩 금년도 상반기 5개월분을 소급하여 125만원씩 15명에게 1,875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보훈금은 금년말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보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는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과학기술 교육 및 진흥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인 과학기술자라야 하며 금년도에 수혜대상 원로과학기술자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연령 및 전공)

▲ 尹日善(89·병리학) ▲ 李熙晙(89·토목) ▲ 李德鳳(87·생물) ▲ 朴敬替(82·수학) ▲ 崔基哲(75·어류) ▲ 金東一(77·화공) ▲ 権寧大(77·물리) ▲ 玄信圭(74·육종) ▲ 吳鎮燮(77·약리학) ▲ 金鍾射(85·광물) ▲ 楊麟錫(76·농학) ▲ 趙伯顯(85·농예화학) ▲ 崔以順(74·아동학) ▲ 鄭文基(87·수산학) ▲ 朴鼎基(70·수학)

여의도에 OA센터 開場

한국 IBM, 150평 규모

한국IBM(주)은 최근 현재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 한일빌딩 1층에 OA센터를 개장했다.

약 150평 규모로 운영될 이 OA센터에는 지난 4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영동의 한국종합 전시장에서 열렸던 제4회

국제 컴퓨터 사무기기 및 로보트 전시회(KIECO 85)에서 선을 보였던 IBM 5550 다기능워크 스테이션이 주종을 이루게 되며, 누구든지 와서 시범 및 강의를 통해 제품의 특성 및 작동법 등을 익힌 후 각자 자유실습을 통해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다.

약 10명의 강사 및 시범요원들로 운영되는 이 OA센터는 20명의 고객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 품도 갖추고 있으며 이 세미나장에서는 관련제품 소개 비디오 및 슬라이드·상영과 강의도 행해지게 된다.

이 OA센터 개장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이다.

현재 준비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로는 3270 PC를 이용한 터미널 운영, 퍼스널 에디터(PERSONAL EDITOR), 멀티 플랜(MULTI PLAN), 멀티 툴 파일(MULTI TOOL FILE), 멀티 툴 차트(MULTI TOOL CHART)와 한글 워드 프로세싱등이다.

토마스 V·존스회장

'85리드 航空賞 수상

美國항공우주협회(AIAA)는 1985년도 리드(Reed) 항공상 수상자로 노드롭사의 토마스 V. 존스회장을 선정했다.

이 「리드」항공상은 미국항공 우주협회가 해마다 항공공학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상으로서 동협회는 존스회장이 첨단기술을 활용, 성능·신뢰도 및 경제성이 뛰어난 F-20 타이거샤크 전투기를 개발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學生科學發明品 모집

科學館, 경진대회 開催

國立科學館(관장 尹永勛)은 어릴때부터 科學을 탐구하는 마음과 자연을 즐기롭게 이용하는 연구심을 길러주기 위한 제7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작품을 모집한다.

국립과학관이 한국야쿠르트 유업(주)의 협찬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이번 대회는 생활과학부문, 학습용품, 과학완구등 3개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되는 데 올해부터 大統領賞이 신설됨으로써 시상품이 확대, 보다 알찬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시상내용은 대통령상 1명(장학금 2백만원), 국무총리상 1명(장학금 1백만원) 외에 금상 3명(장학금 30만원), 은상12명, 동상 30명, 장려상, 지도교사표창 47명, 학생단체상 13개교등인데 특히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및 금상수상자에게는 미국 및 일본등지 과학계연학의 특전이 부여된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대회의 출품작품의 내용은 「생활과학부문」은 일상생활에 직접 활용이 가능한 생활용품으로써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창작품, 「학습용품」은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학용품으로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창작품, 그리고 「과학 완구부문」은 어린이들의 정서순화, 지능개발 및 교육적효과를 높일 수 있는 완구로서 위험성이 없고 과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창작품이어야 한다.

전시기간은 오는 10월15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시상식은 10

월30일 국립과학관 영화관에서 거행된다.

新刊안내

創造時代 와 歷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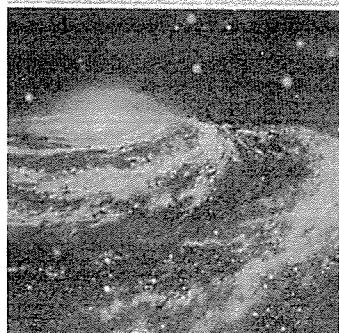
- 새 時代의 文明 · 社會 · 人間

朴 益 淚 著

創造時代와 歷史

새時代의 文明 · 社會 · 人間

朴 益 淚 著



현재 우리는 「우주시대」나 「컴퓨터시대」나 「오토메이션시대」 「합성화학시대」 「유전공학시대」 등 다양한 표현으로 상징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은 서로 긴밀히 관련되고 침투되고 조합되어 더욱 큰 규모의 조직과 복잡한 기능을 만들며 급속히 놀랍게 발전해 가고 있다.

이와같은 현실이 과연 우리의 인간과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주고 어떻게 결과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쉽사리 속단할 수 없으며 그야말로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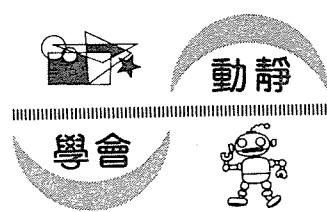
실은 우리의 사상과 관념보다 훨씬 앞질러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와 사회에 대한 우리의 임무를 보다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신을 보다 올바르게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현대를 똑바로 직시하고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않된다.

특히 「현재」를 통하여 역사의 진행을 올바르게 예측한다는 것은 위정자는 물론 모든 지성인들의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생각에서 저자가 쓴 이 책에는 「知識產業의 世界」, 「人間改造時代」 「技術革命과 新르네상스」, 「21世紀의 에너지」, 「歷史속의 動力革命」 「永遠한 疑問의 世界」 「進化냐, 創造냐」, 「컴퓨터 人間과 余暇人間」, 「來日의 人間象」 등이 저술되어 있는 동시에 著者가 科学評論家로 1954년부터 우리나라 原子力문제에 대하여 論評했던 것을 「評論을 통해 본 우리 原子力史」라는 제목으로 한데 묶어 책의 부록으로 함께 수록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原子力歷史의 좋은 資料가 될 것으로 보인다.

〈李林出版社刊, 값 4,800원〉



大韓礦山學會

大韓礦山學會는 4월 27일 1985년도 춘계정기총회 및 제44회 학술발표회를 열고 새 회장에 田溶元 서울대공대교수, 부회장에 黃基輝 한양대공대교수·朴佑炳 삼척탄좌개발(주) 사장·金元祚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부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198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승인하는 한편 198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 확정했는데 학술발표회를 오는 10월경에, 세미나는 광산지질 등 7개 분과 위원회별로 개최키로 했으며 이밖에도 연구조사사업, 외국유관기관과의 국제교류사업, 학회지 발간(5회) 사업 등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총회와 함께 실시된 학술발표회에서는 崔基鍊 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정책부장의 「2천년대를 향하는 자원에너지부문의 장기구상」에 관한 특별강연과 함께 「급경사 유한차분마이그레이션」 등 24편의 일반연제가 「탐사」「채광」「선광」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발표됐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주요연제는 다음과 같다.

* 시추공을 이용한 전자탐사 반응의 실험적 연구…徐廷熙·曹哲鉉(서울대공대)

* 풍화된 화강암의 물리적, 암석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姜昇哲外 (서울대공대)

* 채탄법설계를 위한 컴퓨터 그래픽의 응용연구…정소결(동력자원연구소)

* 목재벽면의 대용재개발에 관한 연구…김종국·홍홍기(대한석탄공사)

* 파인 세라믹스의 현황과 전망…정연익(대한광업진흥공사)

Methods in DDBMS」를 강연했다.

韓國腐蝕學會

韓國腐蝕學會(회장 全民濟)는 5월 3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1985년도 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한국해양대 田大熙교수가 「콘크리트에 관련된 철강의 부식과 그 방식의 대책」, 박종현씨(한국비료공업〈주〉요소과장)와 松本桂一씨(일본東洋엔지니어링〈주〉기술연구소)가 「The Studies on the Corrosion Prevention of Stainless Steels in the Ures Synthesis Plant」를 주제로 강연했으며 일반연제로 「경질양극국산화에 따른 알루미늄합금의 성질변화에 관한 연구」 등 10편이 발표됐다.

大韓血液學會

大韓血液學會(회장 金東集)는 5월 3일 프라자호텔에서 제1회 韓·日 血液學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불응성빈혈」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日本측에서 「불응성빈혈의 역학」「불응성빈혈의 실정」「재생불량성빈혈의 면역억제요법」「불응성빈혈의 현황」 등 4편이, 국내측에서는 「재생불량성빈혈의 골수배양」「불응성 빈혈의 임상적 고찰」「재생불량성 빈혈의 역학」 등 3편이 발표됐다.

韓國菌學會

韓國菌學會(회장 朴容煥) 85년도 춘계특별강연회가 5월 4일 숙명여대내강당에서 열려 李銀鍾박사(농업기술연구소)의 「한국의 水稻 주요병해의 방제상 문제점과 대책」 등 강연이 있었다.

이날 특별강연회에서 다루어진 주요연제는 다음과 같다.

* 인삼의 병해와 대책…오승환(인삼연초연 책임연구원)

* 곰팡이와 식품의 변태…김종협(동덕여대학장)

* 바이러스, 화농세균, 진균에 의한 피부질환…국홍일(이화여대부속병원 피부과)

大韓土木學會

大韓土木学会는 4월27일 대한건설협회 대강당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열고 열고 임기만료된 金東漢회장 후임에 崔榮博고려대 교수를 새로 선출하고 아직임기가 남은 安相英씨(서울시 종합건설본부장)와 鄭熏씨(한국도로공사 부장)외에 文濟吉씨(건국대공대학장)를 부회장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1985년도 학회상을 시상, 金鍾奐경북도 건설국장에게 공로상을, 申芳雄충북대교수와 李鍾珪단국대교수에게 學術賞, 成秀雄포항시 도로과도시계장등 4명에게 기술상, 그리고 姜榮振씨등 두명에게 논문상을 수여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198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승인하고 198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 확정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崔禎鎬박사(연대사회과학대 신방과교수)의 「한 시민이 보는 도시환경의 문제」와 金旭東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의 「해양토목의 최근연구동향」등 두편의 特講이 있었다.

韓國自動車工学会

韓國自動車工学会(회장 金熙喆)는 제1회 生産性향상技法 강습회를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3일간 자동차회관에서 개최했다.

자동차산업 및 자동차부품공업의 관련업체의 생산기술, 시설기획 및 설비자동화담당자등

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강습회에서는 「자동차공업의 육성 방안」「설비투자의 타당성 및 효율성분석기법」「油空壓기술」「Sequence 제어기술」「전산기술」「자동차공장에서의 자동화 사례」「조립생산line의 합리화 및 자동화방안」등이 강연됐다.

韓國高分子學會

韓國高分子學會(회장 金點植)는 5월22~24일 3일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7회 고분자 기기분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IR, NMR, GPC, GPC시범, X선회절, 전자현미경, 열분석, 열분석시범, Rheometry, ESCA, 전기적 성질측정, Dynamic Mechanical Analysis등이 강의됐다.

大韓金属学会

大韓金属学会(회장 韓鳳熙)는 오는 7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热處理 강습회를 개최한다.

產學協同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 강습회는 현장기술자는 물론 설계 및 검사등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새로운 열처리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키 위한 것이다.

이번 강습회에서는 서울대 李東寧교수를 비롯 연세대 崔鍾述교수, 홍익공전대 金完哲교수, 서울대 李榮培교수, 한국과학기술원 南壽祐박사등 5명의 강사가 「강과 그 기계적 성질」「오스테나이트 변태 및 강의분류」「경도와 경화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열처리로의 형태와 구조」「스테인리스강의 조성과 열처리」등 15개과목에 대한 강습이 있게 된다.

大韓藥學會

大韓藥學會(회장 韓德龍)는 학회사무실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강남구 서초동 1161-2 약사회관 2층으로 옮겼다. 전화 584-3257

大韓工業教育学会

大韓工業教育学会는 5월11일 충남대 교수회의실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회장에 李載元충남대 교수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또 84년도 결산보고에 이어 85년도예산안을 심의하는 한편 学會会則 및 細則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한편 총회에 이어 「공고교육 활성화방안」, 「미국공업교육 현황」등 특별강연이 있었다.

大韓人間工學會

大韓人間工學會(회장 朴景洙)는 5월28~29 양일간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 제4 회의실에서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美國 퍼듀대학교의 Gavriel Salvendy박사를 초청, 「인간, 컴퓨터, 로보트」를 주제로 한 세션의 강연과 청주대 이근수교수의 「Apple II 퍼스널컴퓨터를 이용한 Video Image Processing 과 인간공학 및 작업관리에의 응용」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韓國航空宇宙學會

韓國航空宇宙學會(회장 趙慶國) 1985년도 춘계학술강연회가 4월27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려 日本宇宙科學연구소 長友信一씨의 「인류를 위한 우주과학의 진보」, 日本航空宇宙技術연구소 中村嘉宏씨의 「이온엔진의 연구, 개발과 그 응용」등 두편의 강연과 「저속 3 차원날개의 高仰角에서의 失速 현상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등 13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주요논제는 다음과 같다.

* 정지비행 시 헬리콥터 날개의 後流에 대한 수치적 연구... 황명신(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소)

* 전투기의 비행운동 분리를 위한 모델규범형 적응재어계의 적응... 이영재 위상규(서울대)

* 亞音速飛行機에 대한 空力特性의 예측... 송기천(인하대, 현 공군군수사령부)

韓國氣象學會

韓國氣象學會(회장 曹喜九) 제23회 정기총회 및 1985년도 춘계학술발표회가 5월4일 중앙기상대에서 열려 초청강연 두편, 연구논문 19편이 발표됐다.

이날 초청강연으로는 일본기상 Takeo Kitade 씨의 「일본의 수치예보」와 농업기술연구소 정영상씨의 「농업기상재해 대책을 위한 기상정보의 이용」 등 두편이 발표됐으며 일반연제로 「국지기본예상법」「남한의

국지고기압의 특성에 관하여」「계절풍과 해류가 표면수온의 연변화에 미치는 영향」「서울의 도시 기온에 관하여」「기온 및 지온의 변화에 미치는 토양수분 효과의 수치해석」등 19편이 발표됐다.

韓國生藥學會

韓國生藥學會(회장 池亭済)는 4월26일 서울대학교 생약연구소강당에서 제14회 漢藥開發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漢方製劑의 효능을 주제로 서울대 金炳玗 교수의 문제제기에 이어 片子丸, 求心, 八味丸키디, 双金湯, 한신葛根湯, 荆防敗毒散의 효능과 한약제제의 응용에 관해서 발표했다.

韓國營養學會

韓國營養學會(회장 成樂念)는 5월4일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춘계심포지움을 개최했다.

「탄수화물과 영양」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탄수화물대사와 임상학적문제점」「식품섬유」「식품에서의 당-아미노성분들의 상호반응과 단백질 영양」등이 발표됐다.

大韓電氣學會

大韓電氣學會(회장 白龍鉉) 과학의 달 기념강연회가 4월26일 경기공업개방대학 공업교육

연구소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초전도와 전기공학(李承院 / 서울대공대교수)」「韓電의 연구개발현황과 전망(權泰遠 / 韓電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태양전지의 현황과 전망(韓民九 / 서울대공대조교수)」「우리나라 엔지니어링의 기술수준 및 사업수행 현황(朴魯相 / 현대엔지니어링(주) 상무이사)」등이 강연됐다.

韓國金屬表面工學會

韓國金屬表面工學會(회장 李柱性)은 5월4~5일 경북대학교에서 춘계학술강연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강연 및 연구발표회에서는 서독 Oberflächen의 L. Winkler박사가 「표면처리공장의 폐수처리 기술」에 대한 특별강연을 비롯 산학강연 5편, 연구논문 2편이 발표됐으며 「기계적 충격도금」에 관한 신기술소개가 있었다.

大韓結核學會

大韓結核學會(회장 李沅永)은 5월28일 부산 조선비취호텔에서 제60차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유행성 폐출혈질환』을 주제로한 심포지움과 「Protease and Antiprotease in the lung(박순규/부산의대내과)」「결핵의 혈청학적 진단(김상재/결핵·결핵연구원)」등 두편의 특별강연을 실시했다.